

頂部 周緣가까지 蓮花文이 둘러 있으나 他類例와 같이 立狀이 아니고 奉德寺鐘의 形式을 따랐다. 上下帶가 있어 上帶에는 唐草文 下帶에는 半圓圈內의 花文을 들렸고 乳廓은 四處에 있어 花文帶로 區劃하였으나 그 안에는 오직 中央에 큼직한 圓乳 一個만을 配置한 것이 매우 특異하다. 또 乳廓下 二處에 圓形撞座(蓮花紋)가 있는데 이와 交代되는 胴體空間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이것도 上記한 乳廓과 더불어 略化의 手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鐘腹에는 大字로 陰刻된 三行의 記錄이 있는데 判讀이 困難하다.

卯僧京己

房小

戊辰五月

高麗下代의 作品으로 推定되는 바 鐘體는 下部에 이르면서 擴大하고 있다. 龍紐의 一足이 缺失된 以外는 保存이 良好하나 彫刻紋樣은 精巧하지 못하다. 全面에 青鏽가 덮혀 있는 바 慶尙道 出土라고 傳한다. 全高三二cm 鐘肩까지 二四cm 上徑一四cm 下徑二二cm 厚一·五cm

(18) 青銅小鐘

高十六·五cm 下徑一〇·五cm에 不過한 아담한 小鐘으로서 全面에 青鏽가 덮여 있어 一見出土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傳江原道 平昌出土) 이같이 매우 작은 作品이기는 하나 各部의 樣式은 하나도 略化함이 없고 保存은 鐘體에 歪曲된 面이 있기는 하나 完全하다. 鐘肩上緣을 돌아 三角形 立狀蓮紋이 둘러 있고 上·下帶에는 각기 花文을 새겼으며 四乳廓으로서 各九乳를 갖고 있다. 鐘腹에는 通式을 따라 圓形撞座(蓮花紋)와 菩薩坐像(蓮花座와 圓頭身光이 있는)을 各各 二處에 交互로 配置하고 있다. 龍紐 圓筒을 具備하였는데 筒頂에는 二珠가 남아 있다. 年代는 高麗下代로 推定된다. 서울 李洪根氏所藏.

(19) 乙巳銘 青銅小鐘

通式을 지니는 小鐘으로서 龍紐가 缺失되기는 하였으나(圓筒과 二足殘存) 鍾身은 完全하고 各部紋樣은 精巧하다. 上·下帶는 雷紋, 四乳廓(各九乳)이며 圓形撞座와 二合掌菩薩坐像(雲紋上) 各二가 交互로

配置되고 鍾肩上에는 立狀蓮花紋이 둘러 있다. 土中品이나 青鏽의 色澤도 고르고 아름답다우며 紋樣도 分明하다. 鍾腹이 부르나 下端에 이르면서 다시 움으라지고 있으며 下帶에 平行하여 細刻된 銘文一行이 있으나 初頭의 乙巳가 判讀될 뿐이다.

高二二cm 上徑九cm 下徑十四cm 厚一·五cm

(註) 高麗青銅梵鐘의 新例(一其) 本誌一의二、一九六〇年九月、(二其) 一의五、一九六〇年十二月(三其) 二의一、一九六一年一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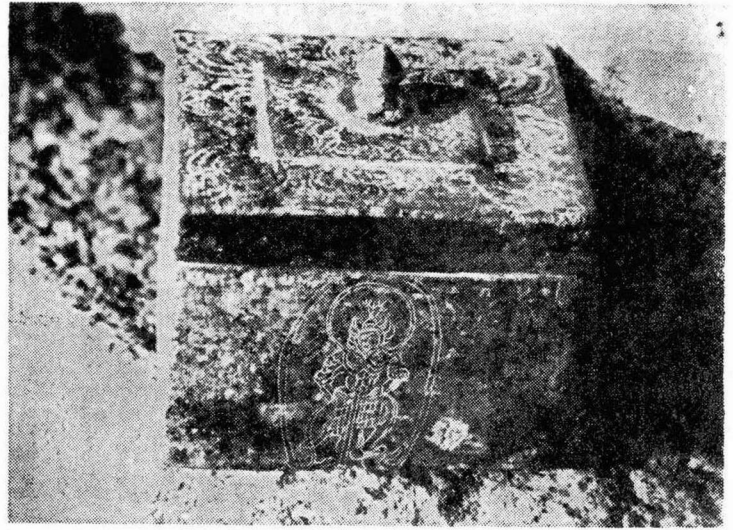
慶州出土의 青銅舍利盒

朴 日 薰

慶州市 東川里 藥山은 北川을 사이에 두고 明活山城과 對岸하고 있다. 이 山中腹에 金亥出氏의 先塋山所가 南向하였고 墓 앞은 高約二〇m의 높은 斷崖를 이루어 가끔 雨水에 沙汰가 남으로 墓主는 지난 七月 一五日 이를 修理하고자 塊石을 物色中 沙汰面에 石角이 一部 突出됨을 採取한 바 바로 그 돌이 石函 뚜껑이었고 石函에는 青銅盒이 들어있었다. 青銅盒은 그날로 自己집으로 가지고 와서 깨끗이 掃除하고 재떨이로 使用하였다. 그후 兪장수의 仲介로 骨董品行商人 某氏에게 賣渡된 事實이 밝혀지자 七月 三十一日 곧 慶州博物館으로 入手되고 當日로 現場調査와 함께 내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는 石函도 실어와서 函內部에 묻어 있는 흙을 水洗한 바 火葬된 人骨數片을 檢出하였다.

1, 石函은 花崗石으로 上面 四〇cm의 方形으로 다듬었고 그 中央에 方二〇cm 深一〇·五cm의 函孔이 있는데 底部는 줄어들어 一邊이 一五cm이다.

뚜껑은 函外邊보다 크게 만들어져 方五·一cm 下面에 若干方形의 凹面을 뒀다. 函과 뚜껑의 外面은 아무렇게나 다듬어졌고 뚜껑이 큰 理由는 地下에 埋藏하여 函內部로 侵水를 防止하기 爲함인 듯하다.



가 있는데 손으로 만지니 곧 부서지는데 白色가루가 되어 바람에 모두 날라 없어졌다 고 한다. 이로써 大豆만한 一個의 物體는 銅盒에 安置되었든 舍利인 듯하고 火葬된 遺骨은 石函内部에 舍利를 裝置한 銅盒과 함께 安置하여 埋藏한 듯하다. 線刻으로 된 四天王像이나 뚜껑에 線刻된 寶相華紋은 新羅統一以後의 것으로 짐작된다.

實測值……總高(꼭지까지) 七·三cm 盒高(뚜껑까지) 五·三cm 뚜껑高 一cm 下面 七·三cm × 六cm

2, 靑銅製鑄造矩形盒의 盒上緣은 뚜껑을 받는 印籠이 있어 뚜껑을 닫으면 꼭 맞게 하였고 盒外面에 四天王像을 一軀씩 線刻하여 長軸을 南北으로 둔 配置이다. 뚜껑은 上面이 二段으로 되고 中央에 寶珠形鈕를 붙이고 이를 中心하여 方形對角에 花葉中心을 두고 그 사이에 또 一葉씩을 둔 線刻으로 寶相華紋을 二段으로 配置하였다.

發見者의 말에 依하면 最初 銅盒內에 大豆만한 둥근 物體

醴泉 靑龍寺의 塔像

鄭 永 鎬

一、三層石塔

慶北醴泉郡龍門面仙洞에 자리잡은靑龍寺는 近年에 이루어진 寺刹이나 이곳에는 法堂內의 石佛 二軀를 비롯 前庭에 石塔 一基等 貴重한 遺物이 保存되어 있다. 石塔은 三層으로서 倒壞되었던 것을 再健한 듯 한데 基壇部는 上甲石만 보일 뿐 그 以下는 埋沒되어 있다. 四枚石으로 된 甲石上面에는 二段의 얇은 괴임을 彫刻하여 塔身을 받고 있는데 初層塔身에는 門扉가 陰刻되었으며 各層마다 隅柱가 刻出되어 있다. 各屋蓋의 받침은 四段씩이고 落水面이 平薄하며 上面에는 괴임層段이 없다. 屋蓋石이나 各部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麗初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現高 一六〇

塔身高	幅	隅柱幅	屋蓋長	厚
一層 四四·五	五五	九	八四	二六
二層 一八	四六·八	九	七五	二〇
三層 一四·五	三八	五·五	六四	一九

二、石造如來坐像

光背와 臺座를 具存한 바 現在 光背는 別置하였다.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서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둘러졌다. 兩眉眼이나 鼻部 口唇等이 整齊되어 圓滿한 相好인데 兩耳朵에 若干의 破損이 있음은 遺憾된 일이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을 걸쳐 무릎을 덮었고 胸前에는 袈裟의 結帶가 보이는데 그 流麗한 手法이 注目된다. 手印은 降魔觸地印이고 後面에는 光背를 附着시켰던 圓孔이 있다. 臺座는 上, 中, 下臺로 構成되었는데 下臺石은 밑에 八角側面에 各眼象 一區씩(그안에 花文이 陽刻되어 있음)